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 위	연구위원	성 명	윤덕경
출장기간	2009. 7. 23(목) ~ 7. 27(월) 4박 5일		출장지	일본		
출장목적	일본의 여아와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 수집					
경비부담	우리원 부담(1,858천원)					
방문기관		면담자		협의사항		
(사) 피해자지원도립센터		Akira Yamagami 阿久律 照美 池田志律		- 피해자지원 사례논의		
과학경찰연구소		原田 豊, 島田貴仁, Tomoko HATA, Kazumi Watanabe, YUSUKE OTSUKA, Tomonori SAITO, George KIKUCHI, Mamoru AMEMIYA		- 여아와 여성의 폭력범죄예방 관련 정책방안 논의		
요코하마시청		Matsuishi Toru 森兼 亞紀子		- 가정폭력예방과 기타 스토크 예방관련 정책방안 논의		
동경위민즈플라자		-		- 여성들에게 배우자상담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강좌, 연수사업, 상담사업 등과 남녀평등참획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도서자료실 운영		
가와사키시청		NISHIYAMA TOSHIYUKI 古澤 孝文 KIYOTA MIYAKO		- '안전,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아동보호, 가정폭력예방 사업 논의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불임

출 장 복 명 자 : 윤 덕 경

해 외출장 결과보고서

보고자 : 윤덕경(인권·안전센터 연구위원)

1. 출장목적

- 여아와 여성의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여아, 여성과 관련된 폭력범죄와 관련된 정책사례에 대해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NPO 등을 만나 현재 정책적 대응을 듣고, 또 참고할 만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일본의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安全, 安心 まちづくり) 사업의 진행상황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를 원함.
- 가정폭력, 데이트 DV, 스토키 등 현재 일본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듣고자 함.

2. 방문기관

- (사) 피해자지원도민센터
- 과학경찰연구소
- 요코하마시청
- 동경위민즈플라자
- 가와사키시청

3. 세부일정

날짜	일정 및 방문기관	면담대상
2009.7.23(목)	서울 --> 동경 13:00 (사) 피해자지원도민센터	Akira Yamagami 阿久律 照美 池田志律
7.24(금)	09:30 과학경찰연구소 13:00 요코하마시청	原田 豊, 島田貴仁, Tomoko HATA, Tomonori SAITO, George KIKUCHI, Mamoru AMEMIYA Kazumi Watanabe, YUSUKE OTSUKA,/ Matsuishi Toru 森兼 亞紀子
7.25(토)	10:30 동경위민즈플라자	시설 및 도서관 자료 열람
7.26(일)	-	가와사키시청 면담이 월요일에 가능 하다고 하여 출장일정에 일요일을 포함하게 되었음
7.27(월)	13:00 가와사키시청 동경 --> 서울	NISHIYAMA TOSHIYUKI 古澤 孝文 KIYOTA MIYAKO

4. 면접내용

(1) 2009.7.23(목) 13:00-15:00 (사) 피해자지원도민센터

장 소 : 동경도 신주쿠구 (사) 피해자지원도민센터

인터뷰대상자 : 부이사장 Akira Yamagami

상담지원실장 阿久律 照美

상담지원실장대리 池田志律

○ (사) 피해자지원도민센터의 탄생배경

- 17년 전에 폭파사건이 있어서, 그 폭파사건이 생긴 10년 후에, 그러니까 헤이세이 4년. 그때에 심포지움이 있었다. 거기에서 발표한 사람 중에 한사람이, “일본에서는 피해자들이, 그런 범죄 피해자들이, 그런 범죄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좀 별로 얘기를 안한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 피해자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심포지움에 참석했던 유족 중 한사람이 일반인들 중심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탄생되었다고 한

다.

○ 지원방식

- DV는 보내는데, 여기서는 DV랑 성적 피해랑은 따로따로 구분하고 있다. DV는 지속적으로 그 사귀는, 알고 있는 사람 통해서 폭력을 받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데 성적 피해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일시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여한게 된다. 스토크인 경우에는 경찰한테 넘기고, 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된 센터 같은 데 그쪽으로 보낸다.

- 본인이 너무 경제력이 없다거나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다든지 그럴테니까, 여하튼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돈 받으니까, 보험처리 할 것이고, 병원비도 만약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제도로 해결하고, 따로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경비협회 회장, 범죄협회 회장, 엄마, 엄마회라는데 연합회장, 대학 교수, 작가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며, 이사장하고 부이사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그리고 나머지 전무이사는 매일 상근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일년에 두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한다.

- 여기는 범죄가 생긴 후에 케어(care)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범죄가 생기지 않기 위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 업무가 아닌 일이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이런 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계몽활동을 한다든가, 계몽활동 하는 걸 통해서,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는 걸 통해서, 인제 줄어드는 간접적인 효과는 기대하지만, 적극적인 어떤 이런 예방을 하거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2) 2009년 7월 24일(금) 09:30-12:00, 과학경찰연구소

장 소 : 치바현 과학경찰연구소

인터뷰대상자 : 범죄행동과학부장 原田 豊

범죄예방연구실 주임연구관 島田貴仁

범죄예방연구실 연구원 Tomoko HATA

범죄예방연구실 연구원 Tomonori SAITO

범죄예방연구실 연구원 George KIKUCHI

범죄예방연구실 연구원 Mamoru AMEMIYA

범죄행동과학부 수사지원연구실장 Kazumi Watanabe

범죄행동과학부 수사지원연구실 경찰청지관 YUSUKE OTSUKA

○ 올해의 연구과제 소개

- 일반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를 보내고 있다. 동경의 경찰청에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연구테마 중의 하나가 지리학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를 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다.

- 여기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은, 어린이나 여성에 관련된 범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되지 않는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 범죄지리, 지리 그 지역은 인터넷 공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만든 자료를 경찰청에 보낸다. 이 발생하는 지역이 빨간색 지역. 범죄가 별로 안 일어나는 지역이 초록색 지역.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범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지역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있는 지역에 이런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그 지역으로 힘을 모아서, 대책을 세우자 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로 알고 있다.

-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일반 지역 주민한테 부탁할 수 있는 지역은 지역 주민한테 부탁을 하지만, 지금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폭력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부탁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경찰하고 연대를 한다.

-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14년에 범죄가 가장 피크인 시대였다. 이 범죄예방차원에서 헤이세이 15년에 이 플랜이 있었는데, 이 플랜이 실제 지금 안심, 안전 마을 만들기 마스터플랜이었다.

○ 안전, 안심 마을만들기

- 이 범죄예방에 관련된 이 마스터플랜의 큰 주축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 마을만들기였다. 이 계획 중의 하나가 지역 주민들 같이 모아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폭력조직에 관련된 부분들로 나뉘어서 하고 있다.

- 헤이세이 15년, 2003년도부터 자주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들이 보안활동 하겠다라고 자원봉사하고 있는 그룹들이 급증했다. 2008년, 작년 집계에 의하면, 단체가 4

만개 정도 생겼다.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이다.

- 실제로 주축이 된 것은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협력하는 형태로 예컨대 형광빛 나는 옷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방법적인 면을 좀 홈페이지에 알려준다든지, 세미나 등의 방법을 알려 준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다.

- 2002년도에 일본경제가 피크였을 때 그 몇 년전부터 실제로 경찰에 알려진 사건들이 굉장히 늘었다. 그게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다. 실제 늘어난 범죄의 종류는 도둑질이라든지, 자동, 자전거 훔쳐가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신문에서는 흉악범에 관련된 보도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했다.

- 2002년에 경찰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범죄가 발생하는지를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3년에 아까 그 지도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도별로, 시별로는 통계가 나왔었지만, 구별로는 통계가 안나왔었다. 경찰청 입장에서도 방침의 큰 전환이 있었던 것 같다.

-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성인여자들의 성범죄에 관련 되서 이런 조직은 없고, 어린이들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걸 하고 있다.

○ 여아의 성범죄 관련 예방활동

- 올해 4월부터 이 경찰청에 여성 성범죄에 관련되서는 전문분야가 생겼다. 동경에 있는, 그 경찰 본부 쪽은 66명 정도가 구성 멤버로 되어 있다.

- 일본같은 경우에는, 더 제재를 엄하게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한 인지행동치료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 그룹이 4만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룹 중에서는 경찰들의 형식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단체 중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자주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는 그룹들도 있다.

- 이제 약한 단계에 있는 범죄자라든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범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미리 발견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다.

(3) 2009년 7월 24일(금) 13:00-15:00 요코하마시청

장 소 : 요코하마시청

인터뷰대상자 : 남녀공동참획추진과담당계장 Matsuishi Toru

남녀공동참획추진과 森兼 亞紀子

○ 지자체의 가정폭력 업무

- 시에서 상담을 받아서, 만약 일시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현에 있는 배우자 폭력상담센터로 넘기게 된다. 지자체별로 이 일시보호시설, 즉 쉼터라고 말하는 그 곳이 지자체별로 운영을 직접 하는 곳도 있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나가와현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 일본도 집안의 일은 집안에서 처리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법률전문에서 배우자 폭력이 범죄의 행위에 포함되는 중요한 인권 침해다라고하는 문장을 넣었다.

- 계몽활동 할 때, 이 기간, 2주 동안, 매년, 이 기간 2주 동안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는 운동에 관한 포스터를 지하철 등에 hang, 이 2주 동안은 적극적으로 붙여놓고 그 운동을 하게 된다.

- 요코하마시가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만든 프로그램 가지고 협력하게 된다.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고등학교에 출장(모임)같은거 나가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뭐 가정폭력까지는 아니지만, 가정폭력까지 가기 전 단계, 전단계의 어떤 행위들, 폭력, 이런 그, 폭력자가 되기 전 단계의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행동들도 폭력이다'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다.

○ 가정폭력의 다양성

- 고등학생들한테 사귀는 관계에 있을 때도 여기 DV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서로 사귀고 있을 때... 예도 어떤 행동들, 하고 이제 하는 행동들이 DV다. 폭력이다, 라고 하는 인식시키기 위한 팜플렛이다.

- 아이들이 듣고서, 처음 이런거 알았다고, 그런 말, 얘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평등하게 있어야 돼, 평등하게 지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거를 생각하게 됐다고,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

- 일본의 성교육도 인제 몇 살서부터 시켜야하는지, 몇 학년서부터 시켜야되는지 그런 좀 부모들의 의견, 어떤 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3학년서부터 시키는 데도 있고 안시키는 데도 있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린 애들한테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때문에 오히려, 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다.

○ 새로운 문제, 스토키

- 어저께 뉴스에 바로 스토키에 관련된 게 있었거든요, 남자애가 여자애를 스토키 했는데, 그 여자애 엄마를 죽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 이게 5년 정도 전 데이터인데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9년 전에 이 법률이 생겼다. 스토키행위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생기기 전까지는 실제로 구타를 했다면지 이럴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법률이었었는데, 이 법률 때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500m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접근 금지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다.

- 스토키 행위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 데이터에 나온 것을 보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상대방에 전달되지 않아서 그럴 것 같다. 그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에 원한이 생겨서... DV랑 같이, 상대방 소유하고 싶은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다. DV도 그런데, 스토키도 가해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양상들이 나타난다.

(4) 2009년 7월 25일(토) 11:00-13:00 동경위민스플라자

- 여성들에게 배우자상담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강좌, 연수사업, 상담사업 등과 남녀평등참획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도서자료실 운영

(5) 2009년 7월 27일(월) 11:00-13:00

장 소 : 가와사키시청

인터뷰대상자 :

인권·남녀공동참획실 외국인시민시책·아동권리담당 NISHIYAMA TOSHIYUKI

시민생활부 지역안전추진과 지역안전추진담당 古澤 孝文

인권·남녀공동참획실 남녀평등추진담당 KIYOTA MIYAKO

○ 아동지원담당업무

- 가와사키에서 어린이 권리 조례안, 조례를 만들었다. 9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어린이 권리, 어린이 권리에 관한 사업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이다. 이번에 주로 드린 자료는 어린이 권리에 대한 상담, 그리고 규제에 관련된 총괄적인 사업이다.

- 크게 나뉘어서 6개사업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권옴부즈 퍼슨... 어린이의 인권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취재하는 기관이다, 상담원이 항상 있고, 어린이들쪽에 걸려온 전화나 직접 상담한다. 부모들한테서 오는 상담도 받고, 옴부즈맨 담당자가 어린이 학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한다. 만약에 어린이 학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에 연락한다. 학교에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어린이가 자기가 학대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학교에 알리고 싶지 않다든지, 부모님한테 자기가 지금 상담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다든지 했을 때 어린이의 그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 가장 큰 사업이 학교가지 않는 아이들 관련된 일이다. 학교에 안가는 어린이들이 있을 때, 방문해도 아이가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학교가지 않는 아이들한테 만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다.

○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운동사업

- 가와사키시에서는 여성범죄예방만을 위한 내용은 없고, 어린이에 관련해서 범죄 예방에 관련된 시스템은 있다.

- 안전한, 마을 만들기의 가와사키시의 로망이다. 예전에 가나가와 현에서 안전, 안심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었다. 만든 목적은 지역 경찰과 지역 주민들과 연계에 있다. 그 전까지는 시민이나 시청, 시청이나 구청, 경찰이나 구청, 경찰이나 시청,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연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 행정부와 경찰이 손을 잡아 연계하자 라고 하는 그런 점이 주요한 사항이다.

- 작년에 이 단체들이 어떠한 일을 했고, 앞으로 올해도 어떠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다.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것들이 몇 군데 있다.

- 가나가와현은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육위원회와도 연결된다. 등하교때 지킴이를 하는 건데, 부모님들,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그 다음에 행정관계자들, 경찰들... 연대해가지고 지킴이를 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서, 2002년, 이때 범죄가 가장 많은 피크시기였는데, 그 때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경찰이나 시에서 시민들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다. 예를 들어 야광조끼 파트를 할려면 조끼도 입어야 된다는지, 그런 조언을 하고, 실제로 그런 조끼도 배급하고, 그 다음에 완장 같은 거 배급하고 이러면서 그런 서포트를 해 준다. 역시 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기 힘들니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다니는 사람들은 못하니까, 노인분들한테 저녁에 산책을 좀 많이 하니까, 산책하는 시간에 잠깐 할 수 있다고, 산책하는 시간에 그런 이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관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산책을 하시라는 식의 제안을 한다든지, 저녁에 개 키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개 산책시킬 때, 하실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제안했다.

- 표창은 상금은 없고, 그냥 상만 있다. 명예, 방법을 잘하는 거 표창하는 것은 옛날에서부터 있었다.

- 반상회가 일본에서는 항상 행정기관과 연계, 연락망이다. 우리가 그냥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끼리 반상회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어떤 연락사항이 있으면 모든 연락사항을 다 반상회를 통해서 하게 된다.

○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사업

- DV법이 헤이세이 19년 7월 2일 개정되었다. 법이 생겼을 때,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가와사키에서도 만들고 있다. DV관련된 상담은 요코하마시 내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 전화로 일단 처음에는 상담을 한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도 같은 패턴이다. 가와사키시에서는 각 구청에 여성 상담원이 설치되어 있고, 그 상담원들이 피해자와 상담을 한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나가와현에 있는 DV센터에 연락을 해서 보호를 한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쉼터로 가면, 처음에 상담을 한 여성 상담원이 그 쉼터에 가서, 그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하게 된다. 여기 쉼터에는 일시적으로 2주동안만 있을 수 있다.

- 이 2주가 지나면 다음 자기가 살집을 찾게 된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자립할 때까지 처음 상담한 여성 상담원이 지원하는게 이 시스템이다. 그 쉼터에서 일시적으로 맡는 기간이 2주 동안 인데, 다들 정신적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남자들도 직업이 없고 어려운 시대라서, 직업을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살 곳이 잘 얻어지지 않는다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이 있어서, 일시보호기간을 넘겨서 사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이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 DV 피해자가 오면, 각 그 구청 여성상담원이 전화로 상담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시민, 지금 이분들이 계시는, 시 쪽에 시민 어린이국, 인권 남녀... 인권남녀평등참여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지국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여러 다른 부서들하고 연결, 연계하고 있다.

- 가와사키시에서 만든 팜플렛의 원래 베이스가 남녀공동참획사회와 이 법이다. 그래서 가와사키시에서는 남녀평등가와사키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인게 이 팜플렛이다. 여성인권확립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DV에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5. 시사점

- 일본의 안전,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도 흉악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시작되었겠지만 문제는 아래로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범죄예방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지자체와 자원봉사조직의 연계가 관건이었지만 일본은 반사회조직이라는 것이 우리보다 좀 더 실질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일본 지자체의 가정폭력예방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가정폭력이 다라고하여 생활밀착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숨겨진 가정폭력을 드러내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일본에서 물론 2개 지자체이긴 하지만 이런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 같아 흥미롭게 보았다.

- 우리에게 데이트폭력이라고하여 성폭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데이트DV라고 해서 가정폭력의 범위를 애인관계에 까지 넓히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다. 그리고 스토크도 법이 제정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 두나라간 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자료수집

- 川崎市安全・安心まちづくり推進協議會, 平成20年度 安全・安心まちづくり推進協議

會の取組み.

- 제2기 가와사키남녀평등추진 행동계획(2009년-2013년)
- 경시청, 과학경찰연구소
- 내각부(2009), 범죄피해자백서
- 요코하마시(2006), 요코하마 남녀공동참획행동계획 외 다수